

의경주 4/08/2026 ⇄



# 콩푸 아니고 똥푸

어린이도서연구회 천안아산지회 낭독클럽0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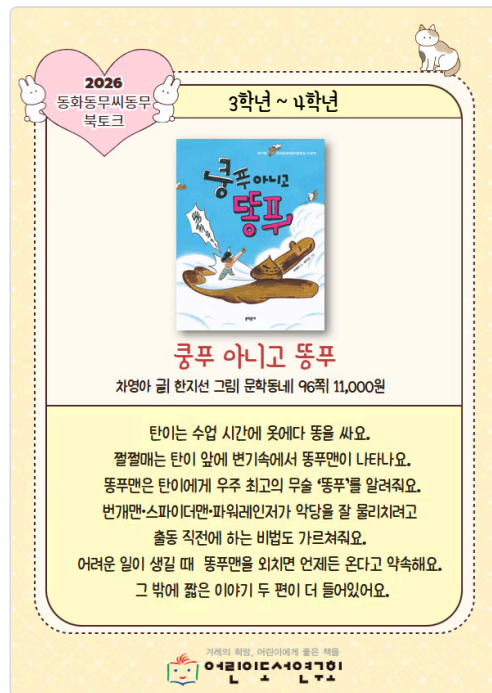
## 소개글

### ⇄ 책소개

- **콩푸 아니고 똥푸**  
**차영아 글 / 한지선\_그림 | 문학동네**
- 『콩푸 아니고 똥푸』에는 작고 서툴지만 마음 착한 아이들의 세 가지 모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친구들 앞에서 똥싸개가 된 탄이가 똥푸맨에게 우주 최고의 무술 ‘똥푸’를 전수받게 된 이야기(「콩푸 아니고 똥푸」), 아홉 살 인생에 첫 택배를 받은 미지가 택배 상자에서 나온 동화책을 읽고 하늘나라를 향해 달리게 된 사연(「오, 미지의 택배」), 겁쟁이 시궁쥐 ‘라면 한 줄’에게 내려진 쥐똥 뺏치게 무서운 마을 구하기 임무(「라면 한 줄」)까지, 이 세 편의 동화는 예상 밖의 사랑스럽고 경쾌한 결말로 내달리며 독자들에게 삼겹살만큼이나 ‘힘이 나는 맛’을 선사한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선과 소박하고 따뜻한 색감을 가진 한지선 화가가 그림을 더해 감동의 폭을 넓혔다.
- **첫 번째 이야기 「콩푸 아니고 똥푸」**  
 친구들 앞에서 똥싸개가 된 탄이, 똥푸맨에게 우주 최고의 무술 똥푸를 전수받다!
- **두 번째 이야기 「오, 미지의 택배」**  
 아홉 살 미지에게 도착한 첫 택배! 택배 상자에서 나온 동화책 미지를 데려간 곳은?
- **세 번째 이야기 「라면 한 줄」**  
 겁쟁이 시궁쥐 ‘라면 한 줄’에게 내려진 쥐똥 뺏치게 무서운 마을 구하기 임무는?

\* 출처 : 알라딘

0 0



### ⇄ 글쓴이 차영아

국내작가 **유아/어린이 작가**  
 어마어마 무진장 재밌는 이야기로. 동화집 『콩푸 아니고 똥푸』로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진실게임』 『야심만만 2』 『스타킹』 작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EBS 어린이프로그램 『모여라 똥똥똥』 『똥똥똥 유치원』 작가로 활동했다.

출처 : 예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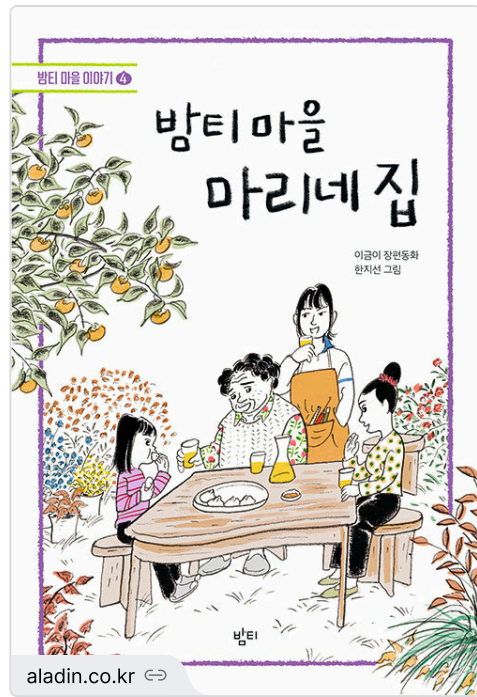
0 0



⇒ **그린이 한지선**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출판 만화를 하다가 우연히 그림책 `까마귀 소년'을 보고 아!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킹스턴 일러스트 온라인 수료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밥 먹자!>, <빨간 장화>가 있고, 그린 책으로 <컵 고양이 후루룩>, <쿵푸 아니고 똥푸>, <밤티 마을> 시리즈, <기호 3번 안석뽕> 등이 있습니다.

○ 0



한지선 저자의 출간 도서 : 알라딘

**함께 나눌 이야기**

⇒ **질문1**

책 속의 탄이처럼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편견이나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똥푸 권법(사소하지만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상의 습관이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 5

**이경주** 4/28/26 3:31오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명상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최은숙** 5/1/26 1:25오전

매일 실천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땀 뻘뻘 흘리며 몸을 움직여요. 그렇다고 다 털어내진 못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절 지켜낼 것 같으니깐요.

**박민주** 5/4/26 1:14오후

특정 행위나 생각만으로 편견과 상처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결국 상처를 들춰보고 생각을 거둬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스스로의 길을 찾는듯 하다. 그 길이 해결이든 정답이든 또는 오답이든, 에너지가 어느정도 쓰여져야만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듯 하다.

**해돋이꿈** 5/21/26 6:47오전

최근에는..챗지피티에게 질문합니다.

**윤보영** 5/27/26 7:36오전

나 스스로가 괜찮다 생각하는 작은 외침?이요. 자주는 아니지만 자존감이 떨어질때 괜찮아~라고 위로해요

⇒ **질문2**

아이들은 자라면서 반려동물과의 이별, 친구와의 멀어짐 등 크고 작은 '상실'을 겪게 됩니다. 미지에게 '하얀 운동화'와 '마법 같은 시간'이 슬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듯, 우리 아이들이 상실감을 겪을 때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위로(하얀 운동화)를 건네줄 수 있을까요?

○ 4

**이경주** 4/28/26 3:30오전

세상은 살면서 겪게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고 언제가는 모두 헤어지게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애도의 마음과 시간을 갖도록 하자..

**최은숙** 5/1/26 1:31오전

마음껏 슬퍼하고 떠난 이를 그리고, 추억하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

**박민주** 5/4/26 1:19오후

지구의 삶이 과연 끝일까 이야기해보고 싶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에 추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영화 코코를 같이 봐도 좋겠다. 엄마가 유명이 되었어 같은 그림책을 함께 봐도 좋겠다.

**윤보영** 5/27/26 7:38오전

우주론적 관점에 이야기해줘요. 저보단 특히 아빠가요. 우리 모두 원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되는거야

⇒ 질문3

"세상은 험하고 너를 지켜야 한다고 속삭이는 일이 늘어난다"는 구절처럼, 우리는 종종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험보다는 몸을 사리라고(라면 한 줄만 가져오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아이가 움츠러들지 않고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며 타인과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 어떤 용기를 심어주어야 할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0 4

이경주 4/28/26 3:30오전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나부터 용감해질 필요가 .. 있다.

최은숙 5/1/26 1:44오전

일단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다는 든든한 지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버팀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때도 쉽게 주저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될 거라 생각한다!

박민주 5/4/26 1:27오후

일상 속 소소한 순간에서 스스로 혼자 해야 할 것과 연대해야 할 것들을 자주 경험하고 판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가끔 엄마가 허락하는 빈틈이 어린이 혼자 생각하고 일어서고 움직이게 하는 용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빈틈은 중요하다. 또한 우리 혼자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결국 어떤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게 중요할 것 같다.

윤보영 5/27/26 7:39오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주는것? 작은 실패의 경험, 시행착오를 겪어보게 하는것

한 줄 소감

---

⇒ 윤보영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에 적합한 책이네요. 읽어주기 좋은 책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나만의 똥꾸 권법 찾기를 해보고 싶어집니다

0 0

---

⇒ 박민주

원래 좋아했던 기억에 남는 책이어서 좋았다. 따뜻하고 적당히 교훈적이다. 김지은 평론가님의 심사평이 너무 좋았다.

0 0

---

⇒ 이경주

짧은 단편단편이 아쉽지 않고 알찬 느낌. 읽어주기도 좋다

0 0

---

⇒ 하지원

0 0

---

⇒ 윤미정

0 0

---

⇒ 전효진

0 0

---

⇒ 박새로미

0 0

---

⇒ 최은숙

01

최은숙 5/1/26 2:02오전

내용이 가볍다 생각했지만 그 속엔 자신의 부끄러움을 유쾌하게 털어낼 줄 알고, 이별의 아픔을 마음껏 슬퍼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까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실은 읽은지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ㅎㅎ) 마지막에 김지은 평론가님의 글을 읽고 별로였던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았는데,,, ㅎㅎㅎㅎ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던 동화.

마음을 울린 한 문장

⇒ 윤보영

00

⇒ 박민주

월요일엔 사랑스럽고, 수요일엔 아름답고, 금요일엔 귀엽고, 주말에는 똑똑한 개.

00

⇒ 하지원

00

⇒ 이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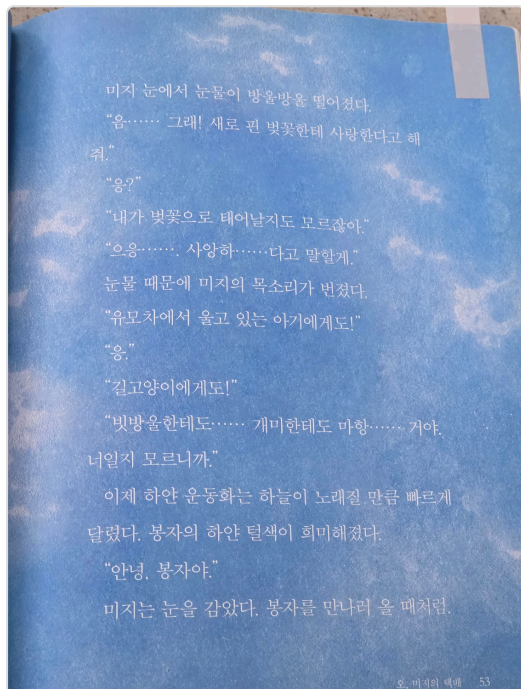
p. 내가 '요스요스 야호 쥬스쥬스 야하' 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엄마는 내 앞에 삼겹살을 쏘옥 넣어 주며 말했다. "사랑이 항상 이긴다."

00

⇒ 최은숙

01

최은숙 5/1/26 2:04오전



p53. 미지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음... 그래! 새로 핀 벚꽃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응?" "내가 벚꽃으로 태어날지도 모르잖아." "응... 사랑하...라고 말할게."

눈물 때문에 미지의 목소리가 번졌다.  
"유모차에서 울고 있는 아기에게도!" "응!" "길고양이에게도!"  
"빗방울한테도....개미한테도 마항.....너일지 모르니까."

---

⇒ **윤미정**

🗨️ 0

---

⇒ **박새로미**

🗨️ 0

---

⇒ **전효진**

🗨️ 0

---

## 나의 별점은?

---

⇒ **윤보영**

☆☆☆☆☆

🗨️ 0

---

⇒ **박민주**

☆☆☆☆☆

🗨️ 0

---

⇒ **최은숙**

☆☆☆☆☆

🗨️ 0

---

⇒ **하지원**

☆☆☆☆☆

🗨️ 0

---

⇒ **박새로미**

☆☆☆☆☆

🗨️ 0

---

⇒ **윤미정**

☆☆☆☆☆

🗨️ 0

---

⇒ **이경주**

☆☆☆☆☆

0

---

↩ 전효진

☆☆☆☆☆

0

